SBS 창사 31주년 특집

SBS D FORUM
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Fifty Million Voices Searching for a Conductor

2021.11.18 (목)

SBS 대표이사 사장 **박정훈**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의 상처가 여전한 가운데, 겪어보지 못한 복합적 혼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백만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몰락의 위기에서 아우성치는 현실 저 편에서는,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주가는 3천 선을 넘나듭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청년층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메마르면서 이념·계층·세대·성별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집단 이기주의는 수시로 공정을 위협합니다. 사회 밖으로는 애써 외면해왔던 기후 위기가 턱밑에서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내 목소리를 제발 들어 달라고 외치는 엄혹한 상황, 대한민국은 내년 3월 혼돈의 시기를 이끌어 갈 제20대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여기에 맞추어 SBS D포럼(SDF)은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5천만의 절박한 외침을 조화롭게 풀어낼 정치리더의 지휘 역량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모색합니다.

또, 리더와 더불어 개인들이 자신의 미래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나아가 각양각색의 고유 음색을 유지하면서도 더불어 살기 위해 서로가 감내해야 할 덕목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정치민주화 35주년을 맞는 내년 대선에 맞춰, 새로운 리더십과 팔로어십을 찾는 SDF2021의 담대한 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초청의 글 002
포럼 소개 006
주제 설명 012

프로그램 024
프롤로그: 개막식
오프닝 퍼포먼스
개막사
SBS 제안

Part 1. 038
Session 1 대변혁기 리더의 조건
Session 2 **SDF2021 연구발표**
청년 문제, 지역소멸, 기후 위기의 퍼펙트 스톰
: 생태, 지역, 세대 간 공존(共存)의 길 찾기
Session 3 **5**천만의 소리, 미래를 묻다
Session 4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 모델을 실험하다
Session 5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번창하기

Part 2. 062
Session 6 피터싱어와 같이 생각해보는 **21**세기 윤리
Session 7 공동체 감정을 숙의하는 **5**천만의 지휘자
Session 8 범죄 사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심리학적 기제
Session 9 진정성은 어떻게 전달되는 걸까?

Part 3. 084
Session 10 '메타버스' 개념 창시자 닐 스티븐슨 작가와 대담
- 새로운 현실세계에서 메타버스를 다시 생각하다
Session 11 시대의 자화상...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Session 12 소외된 몸과 과학기술의 미래

에필로그: 폐막식
SDF 지난 1년 101
연사 명단 109
포럼 파트너사 110
포럼 만든 사람들 246

SBS D포럼 소개

미래를 여는 담대한 도전 SDF

SDF는 SBS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실시해온 대표적인 지식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SBS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디지털포럼과 미래한국리포트라는 양대 비영리 포럼을 통해, 기술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한국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화두는 무엇인지 앞서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기술과 사회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서, 변화에 부응하고 더 많은 시청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2018년부터 두 포럼을 계승 발전시킨 <SBS D포럼>으로 SDF시즌2의 문을 열었습니다. D포럼에서는 '디지털' 관점의 한계를 뛰어넘어 'diversity(다양성), democracy(민주주의), data(데이터), dream(꿈), dignity(존엄성)' 등 다양한 화두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특히 SDF 시즌2는 연중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화두를 지속해서 고민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시즌 1에서는 1년에 2번 포럼을 통해 주제를 깊이 있게 짚었다면, 시즌 2에서는 포럼 외에도 뉴스레터와 다큐멘터리 시리즈,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 'D터뷰'와 SDF글로벌 등 SDF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을 통해 '연간 프로젝트'로 1년 내내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난해 5월 시작한 뉴스레터 'SDF다이어리'는 매주 1편씩 발송해, 올 10월 기준 총 77개의 에피소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SDF다이어리'는 '미래를 여는 담대한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에서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화두'와 '시대의 본질적 질문'을 엮어 깊이 있는 통찰과 맥락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상반기에는 '감염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총 4편)'라는 디지털 오리지널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 감염병의 역사와 감염병 시대 인류가 나눠야 할 가치에 대해 의학자, 영화평론가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나도, 청년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청년을 들여다보는 틀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조금은 낯선 청년들의 소리를 조명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한 온라인 오리지널 콘텐츠는 올 초 역주행의 아이콘 브레이브걸스의 유나가 더빙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11월 11일 SBS TV에도 편성됐습니다.

창사 31주년을 맞은 올해 SBS D 포럼은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 기후 위기 등 거대한 변혁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의 미래를 슬기롭게 헤쳐갈 리더십과 올바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하는 혜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그동안 듣지 않았던 '낯선 소리', 즉 '대표되지 않은 목소리'를 어떻게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각계 전문가와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구에서 선택된 미래 담론은 사전에 대선주자들에게 전달되며 대선주자들은 당일 D포럼이 던진 주제들에 대해 공약으로 답할 예정입니다.

SDF는 올해도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방면의 인사들을 한자리에 초청했습니다. 리더십 연구의 권위자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 행동하는 철학자 피터싱어, '메타버스'의 개념을 처음 창안한 세계적 SF작가 닐 스티븐슨, 글로벌 화제작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등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유명 연사들이 대거 함께합니다. 특히 닐 스티븐슨과 황동혁 감독이 국내 연사로 나선 것은 SDF가 처음입니다.

올해 SBS D포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년과 같은 방식인 온라인 '화상 대면' 포맷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제약을 넘어 관객과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초대형 스크린 영상 시스템', 즉 '랜선 화상 포럼' 형태로 진행됩니다. 또 기술 친화적인 포럼을 전신으로 하는 방송 포럼으로서 D포럼은 앞선 기술을 보여주는 장으로서도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3D 라이브 모션 캡처'를 시도합니다. '메타버스'와 '아바타' 개념의 창시자인 닐 스티븐슨은 자신의 주제 의식을 '3D 라이브 모션 캡처'를 활용해 상징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아직은 국내에서 구현하기 쉽지 않은 기술적 도전을, 닐 스티븐슨이 직접 세계 최고의 게임업체

및 그래픽 업체를 SDF에 연결해 줌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해 포럼으로서는 처음으로 전 세션 수어 통역을 제공한 SDF가 올해는 수어 통역에 더해 문자 통역까지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SDF2021의 전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TV로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SDF2021 스페셜'로 5회 편성됩니다. 개막식부터 대선주자 발표까지의 주요 내용은 포럼 당일 11월 18일, 밤 9시부터 90분간 프라임타임 시간대 SBS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SDF
SBS D FORUM
2021

SDF 연혁

SDF 시즌1: 서울디지털포럼 연혁

2004 디지털 컨버전스 혁명: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2005 쿼바디드 유비쿼터스: 디지털 미래사회의 조망

2006 인텔리전스: 디지털 진화의 미래, 지능형 서비스, 로봇 그리고 미래의 삶

2007 미디어 빅뱅!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영향

2008 상상력: 기술, 정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우주 저 너머까지

2009 스토리: 새 장을 열다

2010 신(新) 르네상스: 또 하나의 세상을 깨우다

2011 초(超)연결 사회: 함께하는 미래를 향하여

2012 공존(共存): 기술, 사람 그리고 큰 희망

2013 초(超)협력: 내일을 위한 솔루션

2014 혁신적 지혜: 기술에서 공공선을 찾다

2015 깨어있는 호기심: 새로운 돌파구를 찾다

2016 관계의 진화: 함께 만드는 공동체

SDF 시즌2: SBS D 포럼

2018 새로운 상식 - 개인이 바꾸는 세상

2019 변화의 시작 –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2020 겪어본 적 없는 세상 - 새로운 생존의 조건

미래한국리포트 연혁

제 1차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 (2004)

제 2차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 (2005)

제 3차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 동방학습지국의 비전 (2005)

제 4차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2006)

제 5차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2007)

제 6차 기후의 역습: 지구의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2008)

제 7차 위기를 넘어서 (2009)

제 8차 2010 대한민국 '소통' (2010)

제 9차 경쟁의 딜레마: 공존의 新생태계를 찾아서 (2011)

제 10차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2012)

제 11차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한국형 거버넌스는? (2013)

제 12차 한국사회 재설계 공공성 그리고 착한 성장사회 (2014)

제 13차 광복70년 좋은 정부의 조건
: 전환기를 넘어 착한 성장 사회로 (2015)

제 14차 대한민국 新인구론: 생활공공성과 착한 성장사회. (2016)

제 15차 함께 쓰는 대한민국 성장방정식
: 양극화 해소와 착한 성장사회 (2017)

SDF2021 주제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민주화 이후 35년,
5천만의 소리가 미래를 묻는다

5천만의 소리는 단색이 아닌 5천만 각각의 소리, 또, 그것을 품은 세상의 소리이기도 하다.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 들리지 않았던 '소리', 듣지 않으려 했던 '낯선 소리'에 주목할 때다. 앞당겨진 미래, 거대한 전환기에 SDF2021이 대한민국 정치리더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 "당신은 누구를, 무엇을 대표합니까?"

깨어있는 자, 삶을 지휘하다

깨어있는 개인만이 자신의 삶을 지휘할 수 있다. 그들에게 미래는 다가오는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키우는 가능성이다. 불확실성에 움츠리지 않고 진화를 선택한 사람들. 그들은 미래를 가꾸는 지휘자로서 말한다. 더 크게 상상하고, 대화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SBS 창사 31주년, SDF2021
: 당신은 어떤 미래에 살고 싶으십니까?

SDF2021은 사회·생태적 거대 전환기에 각양각색의 소리들이 고유의 음색을 유지한 채 어울려 살아갈 방법을 찾고자 한다. 소리의 조화를 이룰 리더의 지휘 역량은 무엇인지, 또 개인과 기업, 정부,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소리는 어떻게 어울려 '미래 담론'을 만들어가야 할지, 그 답을 찾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다.

PART 1

SDF2021 안내 및 관객 웰컴 이벤트 — **08:30~ 09:00**

SDF2021 개막식 — **09:00~ 09:15**

오프닝 퍼포먼스
개막사
SBS 제안

Session1. — **09:15~ 09:30**

[조지프 나이 특별인터뷰] 대변혁기 리더의 조건
조지프 나이 -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명예교수

Session2. — **09:30~ 10:20**

SDF2021 연구발표: 청년 문제, 지역소멸, 기후 위기의 퍼펙트 스톰 : 생태, 지역, 세대 간 공존(共存)의 길 찾기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

Session3. — **10:20~ 11:00**

5천만의 소리, 미래를 묻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브레이크 1 — **11:00 ~ 11:10**

Session4. — **11:10~ 11:30**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 모델을 실험하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혁신공공가치 경제학 교수
UCL 혁신공공목적연구소 설립 소장

Session5. — **11:30~ 12:10**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번창하기

로라 아미코 [모더레이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선임에디터

존 E. 캐트소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아메리칸대학교
기업법·기업윤리·사회책임과 교수
영국 퀸즈유니버시티 리더십윤리조직센터 객원연구원

제이슨 미클리언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개발환경센터
기업평화구축부문 선임연구원

김영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마케팅학회장

* Q&A 시간이 있습니다.

12:10~ 12:30 점심시간 / 랜선관객 이벤트

PART 2

Session6. 13:00~ 13:35
피터싱어와 같이 생각해보는 21세기 윤리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학교 인간가치센터 생명윤리학 석좌교수
『동물 해방』, 『더 나은 세상』, 『효율적 이타주의자』,
『왜 비건인가』 저자
안현모 [모더레이터]
전 SBSCNBC 및 SBS 앵커 / 기자, 현 국제회의통역사 겸 방송인
* Q&A 시간이 있습니다.

Session7. 13:35~13:55
공동체 감정을 숙의하는 5천만의 지휘자
이경원
SBS 기자 / 『감정 민주화 : 혐오 시대의 민주주의』 저자
*설문조사 시간이 있습니다.

Session8. 13:55~ 14:25
범죄 사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심리학적 기제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 Q&A 시간이 있습니다.

Session9. 14:25~ 15:00
진정성은 어떻게 전달되는 걸까?
이승훈
SBS 예능본부 프로듀서
이현이
모델 겸 방송인
후지모토 사오리
일본 수어 아티스트, 방송인

브레이크 2 15:00~ 15:20

PART 3

Session10. 15:20~ 16:00
'메타버스' 개념 창시자 닐 스티븐슨 작가와 대담
- 새로운 현실세계에서 메타버스를 다시 생각하다
닐 스티븐슨
'메타버스'와 '아바타'개념 창시자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스노 크래시(1992)』 저자
* Q&A 시간이 있습니다.

Session11. 16:00~ 16:30
시대의 자화상...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황동혁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영화 <도가니>, <남한산성>(감독/각본)
*황동혁 감독 세션의 질의응답은 참가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Session 12. — **16:30~ 17:10**

소외된 몸과 과학기술의 미래

김원영

변호사, 공연예술가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이보그가 되다』 작가

김초엽 SF 작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지구 끝의 온실』,

『방금 떠나온 세계』 저자

* Q&A 시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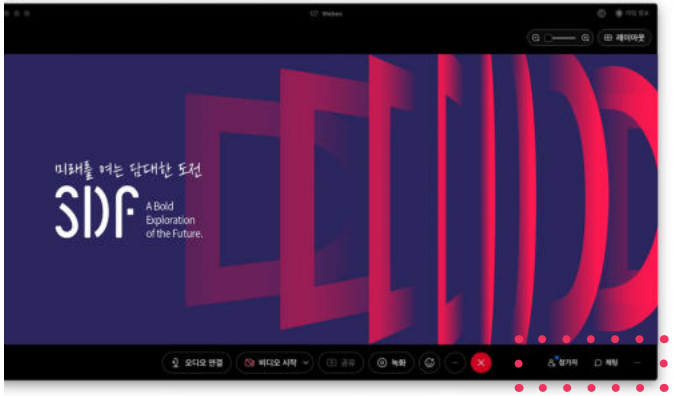
폐막식 — **17:10~ 17:15**

SDF2021 질의응답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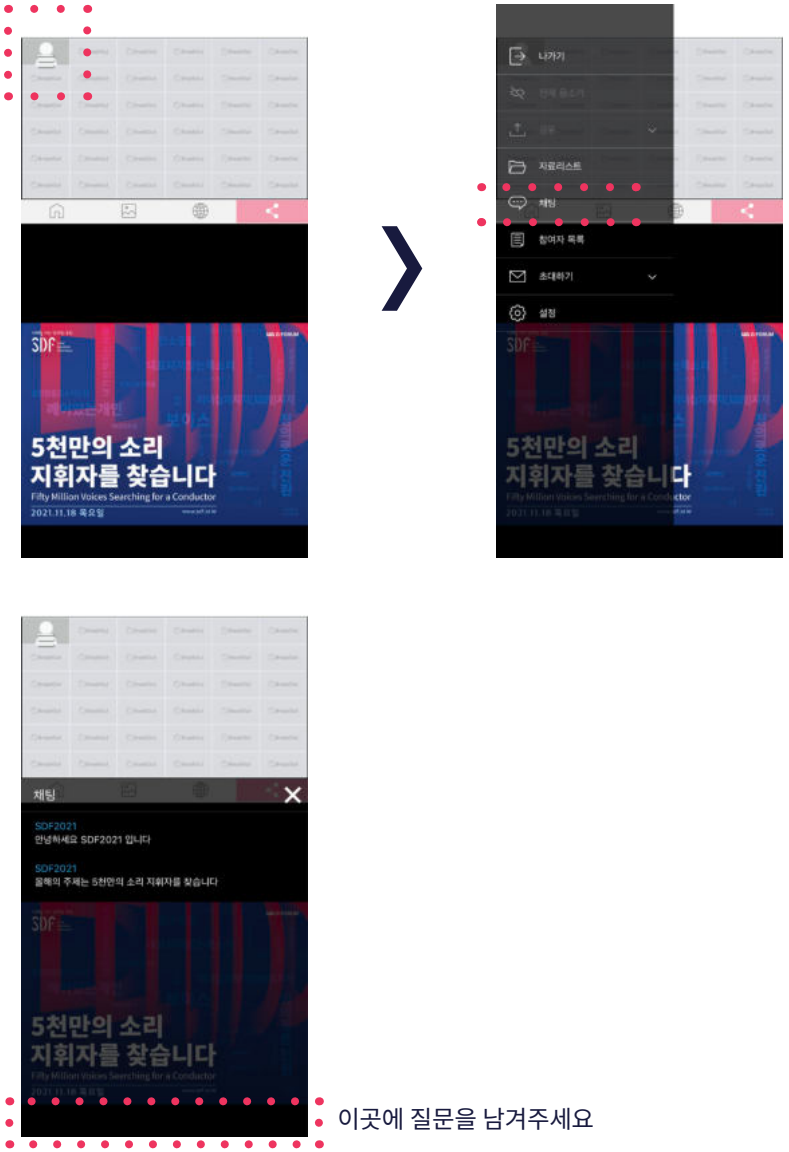
[PC] 좌측 하단의 대화창 활용

이곳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맥북 사용자] 우측 하단의 채팅창을 통해 연사 및 전체 참가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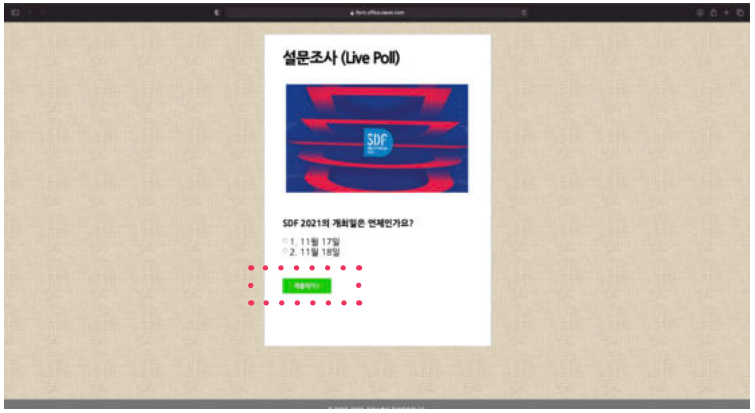
[Mobile] 좌측 상단의 메뉴바 활용



이곳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론 조사 참여 방법

[PC] 답변을 선택하고 '응답하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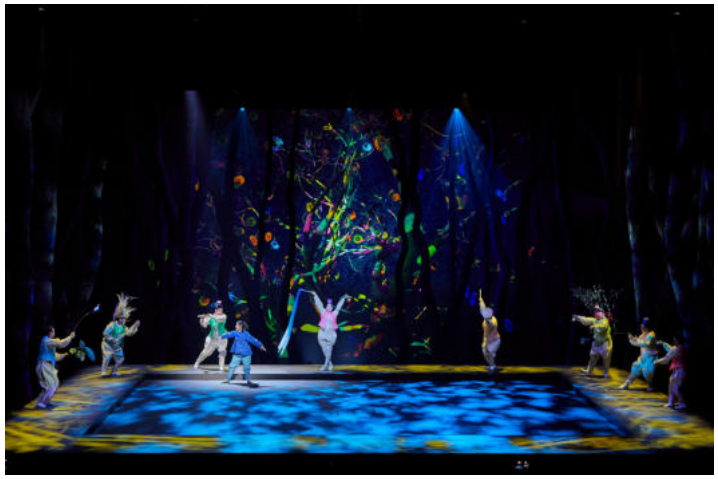


[모바일] 답변을 선택하고 '응답하기' 클릭

오프닝 퍼포먼스
창작 뮤지컬 <금악 禁樂>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 연출/예술감독 | 원일

• **작품소개**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추상적인 영상이 나타난다. 이후 생명은 하나의 개별적 시간을 가진 시계의 모습으로 은유된다. 하나의 시계는 작은 벌레, 풀, 나무, 물고기, 고양이, 비둘기, 사람 등 하나의 생명을 상징한다.

하나의 생명을 상징하는 시계는 하나의 완벽한 우주이며 그 생명에게 부여된 고뮤지컬 <금악 禁樂>은 신라시대에 만들어져 조선의 궁중음악원 장악원(掌樂院)에 비밀스럽게 전해오던 금지된 악보로 '인간의 욕망을 먹고 자라는 음악'이라는 판타지를 바탕으로 한다. 모든 소리를 듣고 구별할 수 있는 장악원의 천재 악공 성율, 예악(禮樂)정치의 실현을 통해 세도정치를 극복하려는 야망을 지닌 세자 이영, <금악>을 깨운 자의 욕망을 먹고 자라는 존재인 갈.

이렇게 세 주인공을 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성율은 여자의 신분을 숨기고 장악원에 들어가 <금악>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죽음에 관한 비극적인 과거를 알게 된다. 세자 이영은 기존 질서나 법칙에 갇히지 않고 백성의 소리를 잘 듣는 군주가 되기 위해 예악정치의 꿈을 실현하려 한다.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로운 소리를 창조해낼 악인을 찾는 과정에서 천부적 재능의 악인 성율과 만나게 된다. 한편 세도정치 핵심 인물인 김조순은 이영을 견제하기 위해 <금악>의 파괴적인 힘을 필요로 하고 성율에게 <금악>의 해독을 맡긴다. 마침내 성율은 <금악>을 해독해 내지만 금지된 악보 속에 잠들어 있던 갈이 깨어나며 '장악원(掌樂院)'에는 기묘한 사건이 펼쳐진다.

<금악>에서의 '소리'는 인간-생명-존재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예로부터 소리와 음악은 듣는 사람의 정서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특히 한국 음악은 자연의 순환에 따른 변화를 자연스럽게 음악에 담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성율은 자신 안에 잠재된 소리를 분노와 증오가 담긴 음악으로 만들고 이를 복수의 수단으로 삼으며 파국으로 향한다. 이 과정에서 세자 이영과의 만남을 통해 소리는 천지자연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욕망의 소리를 쫓지 말고 자연스러운 것 그대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작품의 모티브인 『모든 것은 살아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라는 의미는 내면의 소리와 들려오는 소리들을 가두지 말고 옮고 그름, 선과 악, 위와 아래도 구분하지 말고 들려오는 소리들을 잘 들을 수 있을 때,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곡 소개**

「들려주고 싶어」

자연과 소통하며 모든 소리를 들으며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진 성율은, 더 큰 세상으로 나가 새로운 소리를 배우고 자신의 머릿속에 넘쳐나는 음악들을 듣고 이해해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바라보며 자신의 갈증을 이야기한다.

가사

비를 맞아도 내 마음엔 물기가 없고
귀를 막아도 빗소리는 파고드네
세상 어디로도 흘러가는 너희
영원히 흐르지 못하는 나
들린다 들려 전부 다 들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나만 소리가 없네
들려주고 싶어 들려주고 싶어
마음껏 뒤섞이고 흩어지는 비처럼
모든 걸 벗어 던지고 뛰어 노는 음악
그게 바로 나, 나의 소리

「자연스러운 것」

마침내 장악원에 들어온 성율, 순수했던 성율의 소리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눈치 챈 세자 이영은 소리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이영은 소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한다. 모든 백성들은 저마다의 욕망, 저마다의 소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은 그 모든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함을 노래한다.

대사

영: 율아. 네가 생각하는 소리란 무엇이냐.
율: ... 모르겠습니다.
영: 아니,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소리란 무엇이냐.

노래

율: 소리란 살아있음의 증거
영: 고요한 것들은 죽은 것인가
율: 소리란 사람을 흔드는 힘
영: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소리는?

대사

율: 저하께서는 소리를 탐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 아니. 소리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온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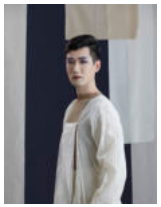
노래

영/율:
소리엔 옳고 그름도 없고 / 선과 악도 없다
위와 아래도 없고 / 예와 악도 없다
소리를 잡으려 하지 말고 / 그저 소리를 들어라
자연스러운 것 /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것
마치 물처럼 사계절을 돌고 돌아 /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연주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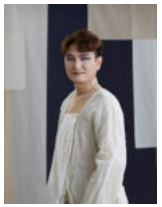
성율 | 유주혜

이영 | 조풍래



소리정령 | 안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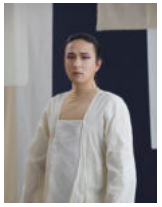
소리정령 | 박상득



소리정령 | 이상관

소리정령 | 강호규

소리정령 | 이상우



소리정령 | 허종환

소리정령 | 이아영

소리정령 | 강민지

소리정령 | 정단비

CREATIVE TEAM

예술감독&연출 | 원일

한국음악계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려온 원일은 예술감독, 작곡가, 지휘자, 피리와 타악기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국립무용단 음악감독을 지냈다. 한국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월드뮤직그룹 '푸리'(PURI/1993)와 한국음악앙상블 '바람곶'(2007)을 창단하며 국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한국음악을 선보였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꽃잎'(1996), '아름다운 시절'(1999), '이재수의 난'(2000), '황진이'(2006)으로 대종상 영화음악상 4회를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작곡과 교수(2002-2012),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2012-2015),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음악감독(2018),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서울 개·폐막식 총감독(2019)을 역임하였다. 음악으로부터 발생하는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다양한 공연 예술 작품으로 실현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한국음악계의 중요한 문화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1996년, '경기도의 소리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 음악의 계승 및 발전'을 목표로 <경기도립국악단>이 창단하였다. 이후 창작음악 위촉과 초연, 음반 및 악보집 발간 등 한국음악을 보급하며 한국음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 2020년 3월 '시나위'의 정신을 표방한 새로운 한국적인 오케스트라로 변화를 추구하고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전통 음악의 생성 원리이자 고유한 창작음악 개념을 동시대의 다양한 예술과의 만남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며, 현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 행위를 펼쳐 나가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음향체를 가진 가장 한국적인 오케스트라로서 전 세계의 모든 음악과 만나며 변모해가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사 | 김정민

작곡 | 성찬경 손다혜

음악감독&편곡 | 한웅원

안무 | 조인호

영상디자인 | EPITAPH(에피타프)

조명디자인 | 백시원

의상디자인 | 최인숙

분장디자인 | 채송화

소품디자인 | 송미영

채색산수화 | 조풍류

조연출 | 이인보

제작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김현우 SBS 기자 | 8뉴스 앵커

2005년 10월, SBS에 기자로 들어와서 16년째 일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평일 저녁 시청자들께 뉴스를 전하고 있다. 선후배, 동료들이 함께 만들고 있는 뉴스가 우리 사회를 좋은 쪽으로 옮기고 있다고 믿는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

사회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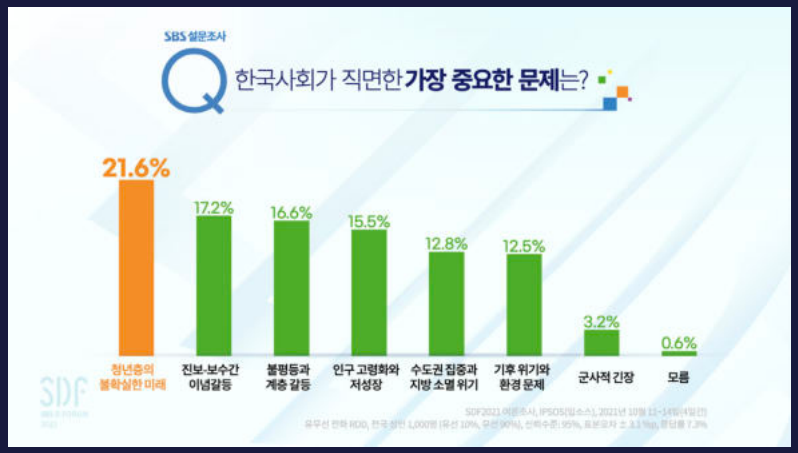
최혜림 SBS 아나운서 | 8뉴스 앵커

SBS 8뉴스 앵커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다. 늘 시간에 쫓기고 일과 가정 균형 잡기 속에 힘겨울 때도 많지만 두 눈 가득 엄마를 담고 있는 아이들 덕분에 매일 웃게 된다.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멋진 세상에서 꿈을 펼치기를, 모두에게 기분 좋은 뉴스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SBS 제안

내년 3월 코로나 이후의 첫 대선을 앞두고 SBS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려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투표권을 지닌 전국 18세 이상 남녀에게 물었더니, 해결해야할 최우선적인 과제로 '청년층의 불확실한 미래'(21.6%)를 꼽았습니다. '진보-보수 간 이념 갈등'(17.2%), '불평등과 계층 갈등'(16.6%)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을 때는 '청년층의 불확실한 미래'가 44%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치권은, 이러한 최우선 과제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다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려 70%, 10명 중 7명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치권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팍팍해진 삶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개인적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응답자 다섯 명 가운데 네 명 가까이가 '부동산 가격과 자산 격차'(79.9%), '생태계의 환경 파괴 행위'(78.8%), '내가 싫어하는 정당 정치인의 행태'(75.5%)에 분노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울분을 해소할 통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사회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표명해 보지만 (경험 있다 61.7%) 그 중 82%는 자신의 목소리가 정부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영향을 준 경험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희망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57.3%)은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리더십'(7.5%)이 아닌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공동체 의식'(35.7%)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희망하는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9.1%) 같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나라(29.7%)', '서로 다른 견해가 존중받고 합의를 이뤄가는 나라'(18.9%)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SBS 제안

그래서 SDF2021은 오늘, 5천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서 5천만의 소리는 하나 된 소리가 아니라 각양각색의 소리들이 고유의 음색을 유지한 채 함께 어울려 내는 소리입니다. 이전 방식의 삶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사회-생태적 거대한 대전환기 속에서 과거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소리에 더 집중하고 불협화음이라도 어떻게 맞춰서 같이 살아갈 것인지 모색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 리더의 자질은 무엇인지, 또 유권자들은 팔로워로서뿐 아니라, 깨어있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직접 지휘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SDF는 그 답을 찾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SDF
SBS D FORUM
2021

PART 1.

Session 1

[조지프 나이 특별인터뷰] 대변혁기 리더의 조건 **09 : 15 - 09 : 30**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명예교수

Session 2

SDF2021 연구발표 **09 : 30 – 10:20**

청년 문제, 지역소멸, 기후 위기의 퍼펙트 스톰
: 생태, 지역, 세대 간 공존(共存)의 길 찾기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Session 3

5천만의 소리, 미래를 묻다 10 : 20 – 11: 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Session 4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 모델을 실험하다 **11 : 10 – 11 : 30**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혁신공공가치 경제학 교수
UCL 혁신공공목적연구소 설립 소장

Session 5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번창하기 **11 : 30 – 12 : 10**

로라 아미코 [모더레이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선임에디터

존 E. 캐트소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아메리칸대학교 기업법 · 기업윤리 · 사회책임과 교수
영국 퀸즈유니버시티 리더십윤리조직센터 객원연구원

제이슨 미클리언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개발
환경센터 기업평화구축부문 선임연구원

김영찬 [대담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session 1

09:15 - 09:30

[조지프 나이 특별인터뷰] 대변혁기 리더의 조건

#리더의조건 #선택과미래 #소프트파워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위기로 불확실성이 팽배한 **2021**년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와 리더십은 무엇일까? 글로벌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 '소프트파워'의 주창자이자 국제정치와 리더십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 조지프 나이 교수를 통해 '리더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명예교수

조지프 나이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전 학장이다.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옥스포드대 로즈장학생에 선발됐으며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 국방부 차관보, 국가정보위원회 의장,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최근 저서로는 『리더십 에센셜』, 『권력의 미래』, 『미 대통령 리더십과 미국 시대의 창조』, 『미국 외교는 도덕적인가? 루스벨트부터 트럼프까지』 등이 있다. 현재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영국학술원, 미국 외교아카데미의 펠로우인 나이 교수는 국제관계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 외교정책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꼽혔고, 2011년에는 국제외교분야 최고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의 글로벌 사상가 100인에 선정됐다.

session 2

09:30 – 10:20

‘SDF2021 연구발표’ 청년 문제, 지역소멸, 기후 위기의 퍼펙트 스톰

: 생태, 지역, 세대 간 공존(共存)의 길 찾기

#대표되지않는목소리 #미래담론 #정의로운전환

기후위기, 청년세대 내 불평등과 세대 간 격차, 지역격차.

SDF연구팀은 이 세 가지가 한국 사회가 미래를 고민하며 가장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할 문제이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SDF2021** 무대를 통해 청년 세대가 겪는 중첩적인 어려움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해결법을 제시한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동아시아복지국가와 비정규직 비교연구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복지국가와 노동시장, 불안정 노동, 소득보장정책, 제도 주의와 비교연구방법론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탈산업노동시장에 국가조합주의가 남긴 제도적 유산(Institutional Legacy of State Corporatism in De-industrial Labour Markets)』(2016), 『한국의 불안정노동자』(공저, 2017), 『기본소득이 온다』 (공저, 2018) 등이 있다. 2014년, 2018년에 각각 우수연구성과 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범부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초대 민간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찾아 듣고 제도에 담기 위해 청년, 그리고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을 연구한다. 이제야 청년이 사회 정책의 대상으로 호명되기 시작한 현재를 넘어, 이 다음 장에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을 정책 결정과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환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소수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게 하며,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실현되는 사회에 대한 논의가 바로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GUSSWO) 공동대표며, 광주광역시 그린뉴딜 총괄정책자문관이다. 대통령소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참여하였다. 한국사회가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면서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깊다.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 이사를 역임했다. 서울특별시의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도시,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했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선거에 세 차례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전환실험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기후변화 이야기』, 『전환도시』가 있으며, 환경재단이 선정한 '2008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뽑혔고, 2015년 한국환경기자클럽이 수여하는 '올해의 환경인상', 2021년 '들불상'을 받았다.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뒤에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국가 폭력과 사회운동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5년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정치사회학,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유럽 정치사회를 가르치고 있다. 베를린자유대학, 오스트리아 그라츠대학,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등 여러 해외 대학에서도 교육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일관된 관심은 부당한 불평등이 왜 존재하며 지속되는가, 권력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라는 질문이다.

세부 관심 분야로는 민주주의, 사회운동, 시민 정치참여, 복지국가 등 서로 관련된 주제들을 교차시키면서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세대와 계급의 관계, 청년 세대의 새로운 사회운동, 세계의 시민정치, 한국 시민사회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2020~2021년에는 암스테르담대학 동아시아 연구 시리즈, 옥스포드 한국 정치 핸드북, 베를린대학 코리아-유럽 리뷰 등에 한국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는 영문 논문을 다수 발표하여 한국학의 국제화에 집중했다.

21세기 세계의 민주주의 정치에 공통된 트렌드는,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서 스마트한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정치와 시민의 관계도 긴밀해졌다. 이런 변화의 함의는 양면적이다. 책임 있는 정치적 리더십과 성숙한 시민사회가 함께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반면, 포퓰리즘 정치와 극단적인 시민들이 뭉쳐서 민주주의를 쇠퇴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중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치, 어떤 시민이 필요한지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session 3

10:20 – 11:00

5천만의 소리, 미래를 묻다

#내가선택하는미래 #시대의급소 #리더십

앞당겨진 미래, 거대한 전환기에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과 답변이 **SDF2021** 무대를 통해 전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주우 SBS 아나운서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SBS 17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현재 '모닝와이드', '접속! 무비월드', '건강비결 좋아요'와 라디오 '김주우의 팝스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심이 많아 방송 활동 외에도 유튜브 채널 운영, 집필 및 강연 등을 통해 다양한 층의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session 4

11:10 - 11:30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 모델을 실험하다

#자본주의위기 #경제와가치 #공공이익

경제 질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역할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 위기를 맞은 자본주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가치'와 '미션'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추카토 교수를 만나보자.

*한국경영학회, SBS 문화재단이 공동 기획한 특별세션입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혁신공공가치경제학교수, UCL 혁신공공목적연구소 설립소장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는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에서 혁신공공가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동 대학 혁신공공목적연구소의 설립소장이다. 미국 터프츠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미국 뉴스쿨대학교 사회연구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서식스대학교 과학정책연구소 석좌교수를 지낸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영국 사회과학 아카데미와 이탈리아국립과학아카데미(Lincei)의 펠로우로도 활동 중이다.

2020년 존폰노이만상, 2019년 유럽과학인문학회연맹(ALLEA) 마담드스탈문화가치상, 2018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수여하는 레온티에프상' 등 국제적인 상을 다수 수상했다. 정치전문지 <뉴리퍼블릭>의 '혁신 분야 3대 사상가'에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경제전문지 <패스트컴퍼니>가 선정한 '가장 창의적인 기업인 50인'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IT전문지 <와이어드>의 '자본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리더 25인'으로 선정됐다.

마추카토 교수가 펴낸 저서 3권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가형국가(The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ublic vs. private sector myths)』(2013)은 성장을 견인하는 정부의 핵심 역할을 살펴보고, 『가치의 모든 것』(2018)은 가치착취가 아닌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을 강조했다. 올해는 신간 『미션 이코노미 Mission Economy: a moonshot guide to changing capitalism』(2021, 국내 미출간)를 발표했다.

마추카토 교수는 전 세계 정책입안자들에게 혁신 기반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조언한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모두를 위한 보건경제 위원회 의장, 스코틀랜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직속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OECD 사무총장직속 신성장자문그룹 위원, 유엔 고위급 경제사회자문위원회 위원, 아르헨티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스웨덴 혁신청 자문위원회 위원, 노르웨이 연구협의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유럽위원회(EU) 위원장 연구과학혁신 특별 고문을 맡아 <유럽연합 내 임무지향적 연구와 혁신>을 발간했고, 이를 통해 '임무지향성'을 EU의 연구혁신 분야 재정지원사업인 '호라이즌2020' 내 핵심 개념으로 확립했다.

session 5

11:30 - 12:10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번창하기

#불확실성시대 #위기 #기업생존

코로나19로 불확실성 시대의 막이 올랐다. 기후변화, 세계화,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모든 위기는 더욱 커지고 향후 위기와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는 전 세계 차원에서는 유례가 없으나 지역 차원에서는 이전에도 존재했다. 이제껏 우리는 분쟁지역의 지도자들과 기업들을 통해 생존과 번창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이번 강연에서는 더 깊은 관계, 더 많은 공동체 활동, 원칙에 입각한 정치적 입장 등이 오늘날의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의 핵심임을 보여줄 것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와 한국경영학회,
SBS 문화재단이 공동 기획한 특별세션입니다.

로라 아미코 [모더레이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선임에디터

로라 아미코는 <하버드비즈니스리뷰>의 선임에디터다.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창업가이기도 한 그는 디지털 공동체와 공동체 담론을 형성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아미코는 하버드대학교 니먼버크먼저널리즘혁신펠로십의 초대 펠로우를 지냈다. 또한 전 세계 유망 신입기자들을 지원하는 온라인뉴스협회(ONA)엠제이베어(MJ Bear)펠로십 위원회의 초대 위원으로, 지금까지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으로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살아보기도 했으며, 현재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거주 중이다.

존 E. 캐트소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아메리칸대학교 기업법·기업윤리·사회책임과 교수,
영국 퀸즈유니버시티 리더십윤리조직센터 객원연구원

존 E. 캐트소스 교수는 학자이자 교육자이자 저자로, 현재 중동에 거주하고 있다. 제이슨 미클리언 교수와 더불어 분쟁지역 내 기업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미클리언 교수와 공저한 최신작 『불확실성 속에서 번창하기 Thriving under Uncertainty』(국내 미출간)은 <하버드비즈니스리뷰>의 월간 시리즈 <빅아이디어>의 2021년 겨울호 주제로 선정됐다. 샤르자아메리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기업과 정부 지도자에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에 대해 교육한다. 그의 연구물은 <하버드비즈니스리뷰>, <워싱턴포스트>, <저널오브비즈니스에식>, <아카데미오브매니지먼트이그젝큐티브> 등에 실린 바 있다.

제이슨 미클리언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개발환경센터 기업평화구축부문 선임연구원

제이슨 미클리언 박사는 오슬로대학교 개발환경센터의 기업평화구축부문 선임연구원이다. 미클리언 박사는 기업과 평화구축을 주제로 75개의 영향력 높은 논문을 발표했고 이 중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인도, 콩고공화국에서의 광범위한 현장 연구를 토대로 한 논문으로 수상한 이력이 있다. 기업, 평화, 위기 등에 대한 연구와 분쟁피해 지역과 취약지역 내 기업 역할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유엔 기업인권전문가패널을 비롯해 미국, 영국, 유럽연합, 노르웨이 정부 지식은행의 자문위원 등 여러 고위급 전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15세에 첫 창업을 한 미클리언 박사는 이후 25년 간 여러 사업을 운영하며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다. 인종 말살과 내전을 촉발한 역대 최악의 사이클론에 대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스콧 카니와 공동으로 『볼텍스』(2022년 3월 출간 예정)를 집필했다. 이외에도 <뉴욕타임즈>, <포린폴리시>, <이코노미스트>, <하버드비즈니스리뷰>, <힌두> 등 유명 매체에 글을 기고하거나 인용된 바 있다.

김영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마케팅학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응용통계학과)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생물통계학(Biostatistics) 석사와 비즈니스 스쿨에서 계량마케팅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네덜란드의 흐로닝언대학교(University of Groningen)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또한, 미국의 조지아 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에서 방문교수로 활동하였다. 주로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의 제품선택모형을 개발하고 시장구조를 분석하여 마케팅전략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강의는 마케팅관리, 마케팅조사, 마케팅전략, 계량마케팅모형, B2B마케팅 등의 분야를 하고 있다. 그의 논문은 마케팅 리서치 저널(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유로피언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저널(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이코노메트릭스 저널(Journal of Econometrics), 개인 판매 및 세일즈 관리 저널(Journal of Personal Selling and Sales Management), 비즈니스 리서치 저널(Journal of Business Research), 광고 국제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Advertising) 등 각 분야의 대표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마케팅연구, 소비자학연구, 광고학연구, 경영학연구 등에 발표되었다. 현재 한국마케팅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연세대학교의 글로벌교육원, 상남경영원, 미래교육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 궁금한 게 있다면? - 접속 프로그램 하단에 있는 채팅 창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 Q&A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SBS D FORUM 2021

PART 2.

Session 6

피터싱어와 같이 생각해보는 21세기 윤리 **13:00 - 13:35**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학교 인간가치센터 생명윤리학 석좌교수
『동물 해방』, 『더 나은 세상』, 『효율적 이타주의자』, 『왜 비건인가』 저자

안현모
전 SBSCNBC 및 SBS 앵커/기자, 현 국제회의통역사 겸 방송인

Session 7

공동체 감정을 숙의하는 5천만의 지휘자 **13:35 - 13:55**

이경원
SBS 기자

Session 8

범죄 사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심리학적 기제 13:55 - 14:25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Session 9

진정성은 어떻게 전달되는 걸까? **14:25 - 15:00**

이승훈
SBS 예능본부 프로듀서

이현이
모델 겸 방송인

후지모토 사오리
일본 수어 아티스트, 방송인

session 6

13:00 - 13:35

피터싱어와 같이 생각해보는 21세기 윤리

#낯선소리 #다양성 #비인간과의공생

피터 싱어 교수가 동물해방운동을 일으킨 지 약 반세기가 흘렀다. 초기에는 편견에 부딪혔다. 사람들은 싱어 교수가 '종차별주의'에 반대하고 비인간동물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불필요한" 관심을 갖는다며 비난했다. 하지만 이제 동물해방운동은 감각이 있는 존재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류 의제가 되었다. 점점 많은 사람이 공장식 축산으로 매년 수십억 마리의 가축이 고통 받고 곡물과 대두가 사료로 낭비되는 것에 항의하며 동물성 식품 섭취를 줄이고 있다. 또한 동물성 식품은 지구 기후와 우리 인간의 건강도 위협한다. 오늘날 발생하는 전염병 **4**개 중 **3**개가 동물에서 기원하다는 점을 싱어 교수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화석연료 기반 경제와 공장식 축산 등 인간의 오래된 삶의 방식은 모든 생명체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어떻게 가장 올바르게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21**세기에 더욱 윤리적으로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우리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된 지금. 동물을 향한 학대를 멈추고, 재앙 같은 기후변화를 막으며, 남은 생물다양성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정치지도자들은 이 같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까? 싱어 교수와 함께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학교 인간가치센터 생명윤리학 석좌교수 『동물 해방』, 『더 나은 세상』, 『효율적 이타주의자』, 『왜 비건인가』 저자

피터 싱어 교수는 1946년 호주 멜버른 출생으로, 멜버른대와 옥스포드대를 나왔다. 영국, 미국, 호주에서 교수로 재직한 후 1999년부터 프린스턴대학교 인간가치센터 생명윤리학 석좌교수를 지내고 있다. 2021년에는 베르그루엔 철학문화상을 수상했다.

싱어 교수는 1975년『동물 해방』을 발표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2011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 책을 1923년 창간 이래 영어로 출간된 '역대 최고 논픽션 100권'으로 선정했다. 싱어 교수는 2009년에 발표한『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가난으로부터 구할 것인가』을 계기로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생명'(The Life You Can Save)이라는 비영리재단을 설립했고, 이 재단은 우수한 극빈층 지원단체를 지원하고자 미화 3500만 달러(약 414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마련했다.

싱어 교수는 50권 이상을 집필, 공동집필, 편집, 공동편집 했으며, 이 출간물들은 3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다. 앞서 언급된 2권 외 잘 알려진 저서로는『실천 윤리학』,『사회생물학과 윤리-출간 30주년 기념판』,『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삶과 죽음(Rethinking Life and Death)』,『더 나은 세상』,『시간 밀어내기(Pushing Time Away)』(국내 미출간),『더 나은 세상』,『왜 비건인가 (Why Vegan?)』(2021)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인류 최초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아풀레이우스의『황금 당나귀』의 최신본을 편집했다.

2012년 싱어 교수는 호주 최고 영예의 시민상 훈작사(AC)를 받았다. 2021년부터는 <저널오브컨트로버셜아이디어>의 공동 창간자 겸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안현모
전 SBSCNBC 및 SBS 앵커/기자,
현 국제회의통역사 겸 방송인

SBS CNBC(현 SBS BIZ)와 SBS에서 보도국 기자 및 앵커로 근무하다 현재는 방송 MC와 국제회의통역사로 폭넓게 활약하고 있다. 형식과 장벽을 넘어 다양한 주제와 목소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일이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 생각하며, 매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즐긴다. 이번에는 동물과 비인간동물의 연결에 대해, 나아가 동물과 자연의 연결에 대해 존경하는 피터싱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의 더 큰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 많은 분께서 이번 세션을 통해 제가 처음『동물 해방』을 읽고 느꼈던 섬광같은 깨달음을 다시금 공감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궁금한 게 있다면? - 접속 프로그램 하단에 있는 채팅 창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 Q&A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SBS D FORUM
2021

조정식 SBS 아나운서

내 일터가 질리지 않는 세가지 이유.

첫째,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것.
둘째, 새로운 이야기로 늘 자극 받을 수 있다는 것.
셋째, 말하고 듣고 나누고 합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올해도 SDF로 이 모든 걸 채우고 싶습니다.

session 7

13:35 - 13:55

공동체 감정을 숙의하는 5천만의 지휘자

#혐오매커니즘 #공동체의감정위기 #감정민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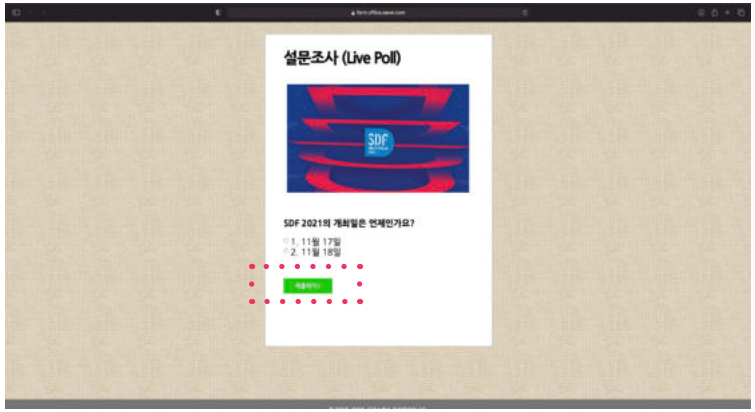
정치 민주화 35년, 촛불 5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조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경원 기자는 우리 시대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한다. 작금의 위기 중심에는 타자에 대한 혐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극단적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혐오가 위험한 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감정이라서만이 아니다. 내 권리를 성취하는 것보다 타자의 권리가 배제되는 걸 우선 삼으며, 민주주의 스스로의 지지대였던 다양성과 공론장의 가치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자가 감정을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처럼, '감정 권력'

이라고 호명하며 대등하게 상정하는 이유다.

이 기자는 감정의 문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는지, 이론 너머 현장에서 맞닥뜨린 생생한 사례를 전달하려고 한다. 이 기자는 늘 "기자는 공동체 감정 유통에 최전선에 있다"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 시대 감정 위기는 기자의 성찰과 언론사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반성 없이는 설명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설문조사 참여방법

[PC] 답변을 선택하고 '응답하기' 클릭



[모바일] 답변을 선택하고 '응답하기' 클릭

이경원 기자
『감정 민주화 : 혐오 시대의 민주주의』 저자
SBS뉴스 팩트체크 코너 <사실은> 담당
한국팩트체크대상, 한국방송대상, 한국방송기자대상 수상

이경원 기자는 SBS에서 사회부, 정치부, 탐사보도부 등을 거쳐 현재는 SBS 뉴스 팩트체크 코너 <사실은>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제3회 한국팩트체크대상을 수상했다. 2013년과 2016년에는 올해의 한국방송대상, 2015년과 2019년에는 올해의 한국방송기자대상, 인권 관련 보도로 노근리평화상,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등을 받았다. 올 초『감정 민주화 : 혐오 시대의 민주주의』란 제목으로 책을 냈다. 정치 민주화 35년, 촛불 5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조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경원 기자는 우리 시대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한다. 작금의 위기 중심에는 타자에 대한 혐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극단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혐오가 위험한 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감정이라서만이 아니다. 내 권리를 성취하는 것보다 타자의 권리가 배제되는 걸 우선 삼으며, 민주주의 스스로의 지지대였던 다양성과 공론장의 가치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자가 감정을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처럼, '감정 권력'이라고 호명하며 대등하게 상정하는 이유다. 이 기자는 감정의 문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설켰는지, 이론 너머 현장에서 맞닥뜨린 생생한 사례를 전달하려고 한다. 이 기자는 늘 "기자는 공동체 감정 유통에 최전선에 있다"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 시대 감정 위기는 기자의 성찰과 언론사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반성 없이는 설명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자연히 5천만의 지휘자를 찾는 SDF의 노정은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한 공동체 감정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들리지 않았던 혹은 들으려 하지 않았던 낯선 소리는 그렇게 튜닝을 시작할 수 있다. 결국, 이 기자는 되묻는다. 5천만의 지휘자가 되려는 당신, 당신은 어떤 감정을 대표하려 하는가?

session 8

13:55 - 14:25

범죄 사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심리학적 기제

#각자의시선 #인지적틀 #사회심리

범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가해자를 평가하며, 자신의 인지적 틀에 맞추어 사건을 인식한다. 이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며, 어떠한 심리학적 기제로 설명될 수 있을까? 범죄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편견과 태도를 다양한 심리학적 기제를 통하여 논하고, 그 시선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차별과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건 보도 시 미디어의 바람직한 관점과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영어교육학 및 심리학을 복수전공하고 졸업한 뒤, 영국 리버풀대학교(University of Liverpool)에서 수사 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시립대학교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하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범죄연구센터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한 뒤, 2010년-2015년 경찰대학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력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 위원, 법원 전문 심리위원, 서울지방경찰청 범죄 프로파일링 자문 위원, 통계청 범죄분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20년도 제75주년 경찰의 날,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표 저서로 2019년 출간한 <범죄심리학> 등이 있다.

살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유괴, 강도, 동물 학대 등 여러 유형의 범죄자의 특성을 연구하고 유형을 분류하며 범죄 행동과 심리를 분석해 왔다. 더불어, 범죄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 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기제에 관하여 활발히 연구를 진행 중이다.

★ 궁금한 게 있다면? - 접속 프로그램 하단에 있는 채팅 창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 Q&A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session 9

14:25 - 15:00

진정성은 어떻게 전달되는 걸까?

#예능다큐 #진짜가나타났다 #새로운연결

비인기 종목인 '여자 축구'를 선수도 아닌 아마추어 연예인들이 하겠다고? 처음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의 컨셉이 알려졌을 때, 여론은 반신반의했다. 결과는? 올해 초 파일럿을 시작으로, 첫 정규 시즌 내내 화제성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스포츠 경기 중계를 보면 스타 플레이어, 공격수 위주로 나오잖아요. 저는 못 하는 사람들도 못 하는 대로, 순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못 하는 사람의 실력도 매일 조금씩 늘어요. 그들도 잘 하는 선수 못지 않게 어디선가 열심히 연습하며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런 모습을 화면에 담으면 어떨까? 저는 그게 우리 프로그램의 '공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진 사람도 진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능을 다큐로 받은 그, 이승훈 **SBS** 예능본부 **PD**의 도전기를 통해 여럿이 함께 만들어낸 진정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승훈
SBS 예능본부 프로듀서

“위기는 곧 기회다”

이처럼 뻔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 성공한 이들이 본인의 업적을 뽐내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불타는 청춘>의 여행을 반겨주는 지자체는 없었다. 콘셉트가 친구들과의 한적한 시골 여행인데.. 우리를 받아준다는 시골이 없다니! ‘제발 오지 말아 달라’는 난감한 부탁이 거듭되었고 가을쯤에는 전국 어디를 뒤져봐도 갈 수 있는 장소가 씨가 말랐다. 그럼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뭐라도 하자! 라는 마음으로 잡은 캠핑장에서 ‘뭐라도’의 일환으로 시작된 여자들의 축구 경기.

그런데..웃긴데 진지하고, 어설프지만 몰입감이 엄청나다. 무엇보다 진심이다. 위기는 정말 기회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얻어걸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겠다고. <골 때리는 그녀들>의 진심과 함께 프로그램은 순항 중이다. 그녀들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경험, 짜릿하다.

이현이
모델 겸 방송인
2021 K-모델 어워즈 위드 AMF 글로벌 '올해의 모델상 모델테이너 부문'

‘스마트 모델’, 2030 여성들의 ‘워너비 모델’로 알려진 이현이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재원으로 2005년 슈퍼모델 선발대회로 데뷔했다.

2005년 슈퍼모델 입상 이후 꾸준히 이어온 다양한 활동으로, 데뷔 후 2년 만에 해외 패션 업계에 진출하여 뉴욕, 파리, 런던의 패션 위크를 통해 장 폴 골티에, 에르메스 등의 쇼에 참여하며 글로벌 모델로도 입지를 굳게 다졌다. 2007년에는 패션 사진가 협회 올해의 신인 모델상과 패션매거진 바자 (BAZAAR magazine) 올해의 모델상을 비롯해 2011년에는 아시아 패션 모델 어워즈-패션 모델 (Asia Fashion Model Awards-Fashion Model) 아시아 모델상을 수상 하며 변함없는 톱 모델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특유의 스마트함과 우월한 프로포션으로 패션 매거진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넓히며 다양한 예능, 교양 프로그램의 패널은 물론 MC로 활동하였고, 라디오, 웹 콘텐츠를 포함 2020년에는 JTBC 시트콤 <놓지마 정신줄> 을 통해 연기에도 도전했다. 경계 없는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며 현재 가장 주목받는 톱 모델테이너로 알려져 있다

후지모토 사오리
일본 수어 아티스트, 방송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대사 일본 대표로 위촉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2021년 현재까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행정안전부, 한일 축제 한마당, CSR포럼, 세종한글 국제 홍보대사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대사로 한국에서 수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일본과 한국의 문화외교관(민간) 역할과,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업은 '수어 아티스트'이며, 철학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전 세계 음악을 한국수어를 바탕으로 창작하여 온몸으로 보이게 하는 수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지난 2017년 한글날에 출범한 다국적 외국인 프로젝트 공연팀 ‘한글’ (‘한국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아티스트’의 줄임말)에서 2018년부터 수어 아티스트로 합류하여 활동하고 있다. 농인들의 모국어인 한국수어의 깊이를 배우기 위해 국가공인 수어 통역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2020년 7월 외국인 최초로 한국 수어 자격증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실기시험에도 도전하는 중이다.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FC월드클라쓰(외국인 연합팀)’ 멤버로 발탁되어 오뚝이 정신 에이스! 등번호 452번의 공격수로 활동하고 있다.

SBS D FORUM 2021

PART 3.

Session 10

'메타버스' 개념 창시자 닐 스티븐슨 작가와 대담 - 새로운 현실세계에서 메타버스를 다시 생각하다 **15:20 - 16:00**

닐 스티븐슨
'메타버스'와 '아바타' 개념 창시자,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스노 크래시(1992)』저자

Session 11

시대의 자화상...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16:00 - 16:30**

황동혁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영화 <도가니>, <남한산성>(감독/각본)

Session 12

소외된 몸과 과학기술의 미래 **16:30 - 17:10**

김원영
변호사, 공연예술가,『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사이보그가 되다』작가

김초엽
SF 작가,『행성어 서점』,『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지구 끝의 온실』,
『방금 떠나온 세계』저자

김소원 SBS 아나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이 러시아에선 전혀 다른 뜻으로 알려져 있단다. 많은 사공들이 힘을 모으면 배를 지고 산도 오를 수 있다고. 듣고 빙긋 웃다가 문득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위해 산을 넘어 골든혼에 당도한 오스만투르크의 배를 떠올렸다. 답이 없다면, 길이 안 보인다면 바다를 표류하느니, 선장은 선원들과 힘 모아 산을 넘을 수 있어야 한다 싶었는데, 올해 SDF는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를 소개하며 리더십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깨뜨린다. 매해 우리 사회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온 SDF, 이번엔 대선을 앞두고 리더십에 천착한다.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낼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는가? SDF와 함께 대한민국호의 미래를 상상해보자. 곁들여, 12뉴스, 뉴스토리, 접속무비월드를 진행하는 26년차 아나운서로서 그 어느 해보다 피부에 와 닿는 담론이 펼쳐질 올해도 포럼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

SDF2021의 새로운 기술 도전

SBS D포럼은 세계적인 SF 작가 닐의 세션을 준비하면서, 실시간 3D 그래픽과 XR 기술을 활용한 깜짝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이 세션에서는 닐 스티븐슨의 아바타가 확장 현실 속 청중 앞에 나타나 강연을 시작할 예정이다. '메타버스'와 '아바타'의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으로서 닐 스티븐슨의 이러한 등장은 자신이 세션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의 주제 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 구현하기 쉽지 않은 기술적 도전을 닐 스티븐슨이 직접 세계 최고의 실시간 3D 그래픽 엔진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와 3D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업체인 리얼루전을 SBS D포럼에 직접 연결해주어 협업이 가능했다.

에픽게임즈

에픽게임즈는 1991년 팀 스위니(Tim Sweeney) 대표가 창립한 회사로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세계 40여 개의 지사를 보여하고 있다. 에픽은 글로벌하게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를 선도하며, 3D 엔진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에픽은 또한 3억 5천만 개 이상의 계정과 25억 개 이상의 친구 관계로 구성된 소셜 그래프를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게임 중 하나인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고 있다. 에픽은 언리얼 엔진의 개발사이기도 한데, 언리얼 엔진은 세계 유수의 게임 제작뿐 아니라, 영화, TV,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SBS의 <아머드 사우루스>와 넷플릭스시리즈 <승리호> 등의 기술을 담당했다.

<출처: SBS / 아머드 사우르스>

<출처: 넷플릭스 / 영화 '승리호'>

리얼루전

리얼루전은 2D와 3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업체로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리얼루전은 실시간 시네마틱 애니메이션(realtime cinematic animation),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및 모션 캡처 툴(motion capture) 개발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얼굴과 신체의 모션 캡처, 음성 립싱크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이런 리얼루전의 핵심 기술은 영화나 게임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영화 <더 수어 사이드 스쿼드(2021)>, <레플리카(2018)>의 특수 효과를 담당했으며, 미국 래퍼 '카디비'(Cardi B)가 참여한 페이스북의 VR 다큐시리즈 카디비의 도전(Cardi Tries)의 특수 기술을 담당했다.

<출처:리얼루전 / 카디비 다큐시리즈 제작 현장>

<출처:리얼루전 / 카디비 다큐시리즈 제작 현장>

session 10

15:20 - 16:00

‘메타버스’ 개념 창시자 닐 스티븐슨 작가와 대담 - 새로운 현실세계에서 메타버스를 다시 생각하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미래학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현실은 빠르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메타버스”, “아바타”와 같은 개념들이 우리의 삶에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SF 소설 분야의 고전으로 꼽히는 닐 스티븐슨의 작품 <스노 크래시>는 내년이면 출판 30주년을 맞는다. 바로 이 책에서 작가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 소개하였고 “아바타”라는 개념 또한 크게 대중화시키기도 하였다.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이른바 ‘서로 다르게 함께 사는 법’을 찾아 나가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SF분야를 주목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메타버스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 수많은 메타버스 논의에 담겨 있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일까? 또한, SF장르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SF적 상상력과 영감, 그리고 이를 통해 혁신이 탄생하는 선순환 문화 생태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상현실세계의 혁명을 태동시킨 주역 중 하나로 꼽히며 경계를 허무는 많은 베스트셀러 작품을 펴낸 작가 닐 스티븐슨이 그의 이상과 통찰력을 공유한다. SBS D포럼을 통해 한국 언론과 처음 만나는 닐 스티븐슨의 특별한 대담에 당신을 초대한다.

닐 스티븐슨
‘메타버스’와 ‘아바타’ 개념 창시자,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스노 크래시(1992)』 저자

닐 스티븐슨 작가는 공상과학, 역사소설, 맥시멀리즘, 사이버펑크, 포스트 사이버펑크등 다양한 장르로 분류되는 사변소설(思辨小說)로 유명한 미국 작가다. 암호학, 철학, 환율, 과학사 등의 분야를 탐구한 작품으로 휴고상, 로커스상, 아서C.클라크상, 프로메테우스상을 수상했다. 또한 <와이어드>를 포함한 여러 매체에 기술 분야를 주제로 기고하고 있다. 유인 우주비행체개발사 ‘블루오리진’에서 기술진으로 근무하고, 특허 전문 기업 인텔렉추얼벤처스(IV) 산하 랩스(Labs)에서 개발자로 근무했으며, 증강현실기업 매직리프의 ‘최고퓨처리스트’를 지낸 바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현재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 중이다.

스티븐슨 작가는『추락 또는 지옥에서 피하기 Fall; or, Dodge in Hell』(국내 미출간),『D.O.D.O.의 흥망성쇠 The Rise and Fall of D.O.D.O.』(공저, 국내미출간),『세븐이브스』,『림디 Reamde』(국내 미출간),『애너템 Anathem』(국내 미출간),『세계의 체제 The System of the World』(국내 미출간),『혼돈 The Confusion』(국내 미출간),『퀵실버 Quicksilver』(국내 미출간),『크립토노미콘』,『다이아몬드 시대』,『스노 크래시』,『조디악 Zodiac』(국내 미출간) 그리고 획기적인 논픽션작『인 더 비기닝 In the Beginning… Was the Command Line』(국내 미출간)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다.

차기작『터미네이션 쇼크 Termination Shock』은 기후변화와 지구공학을 소재로 한 테크스릴러다.

특히 1992년에 쓴『스노 크래시』는 가상세계의 개념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한 기념비적인 SF소설로, 현재 사용되는 ‘메타버스’, 그리고 ‘아바타’라는 용어와 개념이 이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됐다.

★ 궁금한 게 있다면? - 접속 프로그램 하단에 있는 채팅 창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 Q&A 시간이 마돼 있습니다.

session 11

16:00 - 16:30

시대의 자화상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글로벌콘텐츠 #시대의자화상
#인간성을잃지않는사회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총 **94**개국 넷플릭스 '오늘의 **Top 10**' **1**위. 지난 **9**월 **17**일 첫선을 보인 후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한 <오징어 게임>은 전무후무한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직접 <오징어 게임>의 각본을 쓰고 연출한 황동혁 감독에게 이번 작품의 성공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화면 속에 담긴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오징어 게임>에 담긴 우리 사회 불평등에 전 세계인이 공감한 것을 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무엇이었으며,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어떤 것들일까?

★ 황동혁 감독 세션의 질의응답은 참가신청자들에게 사전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황동혁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영화 <도가니> <남한산성>(감독/각본)

필모그래피

오징어 게임(2021, 감독/각본), 도굴(2020, 각색/제작), 남한산성(2017, 감독/각본), 수상한 그녀(2014, 감독/각색), 도가니(2011, 감독/각본), 마이 파더(2007, 감독/각본), 기적의 도로(2005, 감독)

2007년 영화 <마이 파더>로 데뷔한 이래 매 작품 새로운 장르와 이야기를 선보여 온 황동혁 감독은 언제나 차기작이 궁금해지는 감독이다. 청각 장애 학교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를 그린 영화 <도가니>(2011)는 관련 법 제정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상한 그녀>(2014)는 따뜻하고 유쾌한 웃음으로 866만 관객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 등 8개 국가에서 리메이크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첫 사극 연출작인 <남한산성>(2016)은 시대를 뛰어넘은 묵직한 메시지로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작품상, 청룡영화상 각본상 등을 수상했다.

흡입력 있는 이야기와 깊은 주제 의식으로 사랑받아 온 그가 이번엔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오징어 게임>은 극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사회와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를 결부 시켜 강렬한 이야기를 담았다. 황 감독은 “게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공포, 분노, 슬픔만이 남은 것 같으나 그 와중에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인물을 통해 희망 또한 전하고 싶었다”며 언어와 국적을 뛰어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session 12

16:30 - 17:10

소외된 몸과 과학기술의 미래

#불편함을감수하는힘 #사이보그 #다르게같이살기

질병과 장애는 조만간 종식되고 인간의 신체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영화 속 사이보그가 되어가는 중일까? ‘4차 산업 혁명’, ‘메타버스’ 같은 말들이 무수히 유행하는 시대에 현실을 살아가는 아프고, 노화하고, 장애를 가진 몸의 경험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혁신적인 미래 기술로 무장한 사이보그가 되기보다는, 현실의 크고 작은 기술을 현명하고 정의롭게 활용하고, 인간의 능력/무능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김원영
변호사, 공연예술가,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이보그가 되다』 작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같은 대학 법학전문 대학원을 졸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한다. 『희망 대신 욕망』,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이보그가 되다』 등의 글을 썼고, 공연예술에 관심이 많아 연극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법>, <인정투쟁: 예술가편> 등에 출연했다. 2021년 겨울에는 <무용수-되기>라는 공연에서 춤을 출 예정이다. 장애인 등 소수자의 평등을 촉진하는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법이나 도덕의 규범이 비어있는 곳에서 출현하는 우정과 사랑, 탁월함 같은 가치에 주목한다. 법과 공연(춤)이라는 두 경로를 따라간다.

김초엽
SF 작가
『행성어 서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지구 끝의 온실』, 『방금 떠나온 세계』 저자

포항공과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생화학으로 석사를 받았다. 2017년 제2회 한국 과학 문학상 중단편 부문에서 『관내분실』로 대상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가작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기술발전과 인간 소외, 감정과 기억을 소재로 삼는 SF 소설을 집필한다. 출간한 소설로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2019), 『지구 끝의 온실』(2021), 『방금떠나온세계』(2021)등이있다. 김원영 작가와 함께 논픽션 『사이보그가되다』를 집필하며 과학기술과 장애의 관계와 미디어에서의 장애 표현, 장애학과 과학기술학의 교차 지점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2019년 오늘의 작가상, 2020년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다.

★ 궁금한 게 있다면? - 접속 프로그램 하단에 있는 채팅 창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 Q&A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SDF 지난 1년

SDF 연중 프로젝트 궤도에 오르다!

① 매주 수요일에 전해지는 지식 비타민- “SDF다이어리”

<SBS D포럼>을 기획하는 SBS 보도본부 미래팀에서 만드는 연중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매주 발행하는 뉴스레터 ‘SDF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기자와 방송작가들이 주축이 돼서 제작하는 위클리 플랫폼인 ‘SDF 다이어리’는 우리 사회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화두와 시대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이슈의 맥락을 엮어주면서 타 뉴스레터와는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를 넘나들며 만나기 쉽지 않은 국내외 전문가와 세계적인 석학을 직접 인터뷰해 SDF의 관점으로 풀어내는 ‘D터뷰’는 일상적인 현상의 전달을 넘어, 깊이 있는 통찰을 갈구하는 구독자들에게 특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올해 SDF다이어리에서 소개된 인물 가운데 실제 <SBS D포럼>의 연사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을 정도로, SDF다이어리는 1년의 한 번이었던 <SBS D포럼>의 경험을 매주 확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SDF다이어리’는 지난해 5월 첫 발걸음을 뗀 뒤 지금까지 총 79편(2021년 11월 18일 기준) 발송됐고, ‘지식 비타민’ 같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1년 전에 비해 구독자가 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발행되는 ‘SDF 다이어리’는 SDF 공식 홈페이지 (www.sdf.or.kr) 에서 구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장애' 경험을
'사이보그'에 비유한 김원영 변호사와
김초엽 SF작가의 이야기를 담은
<EP.44 사이보그에게서 배우기>

2021.06.23

지금 당장 시작해도 촉박한 '탄소 ZERO'

기후 위기 관련 '탄소중립'
(carbon neutral) 사회를 다룬
<EP.59 전 세계가 '0'에 빠진 이유>

2021.09.01

지휘자 없는 뉴욕의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공유된 리더십 모델(SharedLeadership Model)을 다룬
<EP.69 공유 리더십 실험 50년,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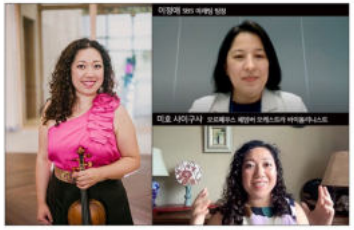


사진 제공: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Orpheus Chamber Orchestra)

인류의 화성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의 배경과 이유를 다룬
<EP.46 우주라는 바다에 발을 적시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권리에 집중하고
직접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을 인터뷰한 <EP.66 다 알고 있다는 착각>

1975년부터 '동물해방운동'을 주장해 온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학교
바이오윤리학과 교수를 직접 화상으로 인터뷰한 'D터뷰'
<피터 싱어- 동물해방 운동의 선구자가전하는 진정한 '고통의 연대'>

② ‘SDF오리저널’ 온라인 콘텐츠 제작 본격화!

1) 고품격 지식 콘텐츠 <감염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시리즈

SBS D포럼을 기획하는 SBS 미래팀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연중 프로젝트는 ‘SDF오리지널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입니다. 그 첫 기획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기획된<감염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시리즈입니다. 코로나19로 겪어본 적 없는 시대를 2년째 맞아 ‘생존과 희망’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속수무책으로 고통받는 인류를 들여다 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할지 함께 성찰해 보는 총 4편의 에피소드로 제작된 시리즈물이 바로 <감염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감염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규원 서울의대 의사학(醫史學) 교수, 윤성은 영화평론가, 이종훈 SBS 기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코로나 시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해봐야 할 질문들을 공유하고 관련 지식을 나누는 토크쇼 포맷의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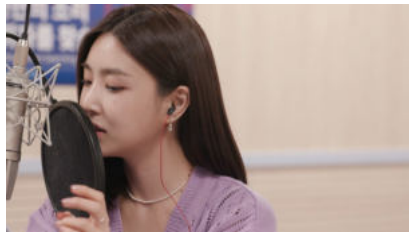
백신 논란과 방역의 역사, 차별과 낙인, 혐오, 신종 감염병의 도래 등 ‘감염병 시대' 에 들여다봐야 할 의학사적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대중적 소재인 영화와 접목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 SDF 다큐멘터리 <나도, 청년입니다>

두번째로 기획된 SDF오리지털 콘텐츠로는 올해 유난히 우리 사회에서 부각된 “청년” 이슈에 주목했습니다. 언제부턴가 ‘MZ세대’로 설명되는 우리 사회 청년들. 투자에 적극적이며, 워라벨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자이자 공정 이슈에 민감하고, 현재의 만족을 중시하는 젊은 사람들로만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이 오히려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이들을 거칠게 일반화하고 정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의 모습은 정말 그럴까요?’ SDF 다큐멘터리 <나도, 청년입니다>는 이런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청년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 정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청년들은 저마다 다른 상황과 고민을 마주하며, 또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별의 존재들, 청년의 목소리가 누락되거나 과소대표되지 않기 위해 사회는 어떻게 노력해야 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SDF오리저널 콘텐츠 ‘나도, 청년입니다’는 올해 역주행의 아이콘이었던 브레이브걸스의 유나가 더빙을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11월 11일 SBSTV로도 편성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사진설명: SDF 다큐멘터리 ‘나도,청년입니다’ 내레이션을 녹음하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의 유나>

SDF
SBS D FORUM
2021

SDF2021 연사 명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영찬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원영 / 변호사
김초엽 / **SF** 작가
닐 스티븐슨 / **SF** 작가
로라 아미코 /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선임에디터
마리아나 마추카토 /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혁신공공가치경제학 교수
박지선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신진욱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안현모 / 국제회의통역사 겸 방송인
원일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이경원 / **SBS** 기자
이승윤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승훈 / **SBS** 예능본부 프로듀서
이유진 /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현이 / 모델 겸 방송인
제이슨 미클리언 /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개발환경센터 기업평화구축부문 선임연구원
조지프 나이 /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명예교수
존 E. 캐트소스 /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아메리칸대학교 기업법·기업윤리·사회책임과 교수
피터 싱어 / 프린스턴대학교 인간가치센터 생명윤리학 교수
황동혁 / 영화감독,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감독/각본)
후지모토 사오리 / 일본 수어 아티스트, 방송인

김소원 SBS 아나운서
김주우 SBS 아나운서
김현우 SBS 기자 / **8**뉴스 앵커
조정식 SBS 아나운서
최혜림 SBS 아나운서 / **8**뉴스 앵커

농협60주년
금융의 모든 순간에
당신과 함께 합니다

NH농협금융

투자가 처음이야?

투자가 문화로 와!

NH투자증권 모델
오마이걸

QR찍고
투자가 문화로로!

투자가 문화로 길 안내

- 이색 투자 쇼핑 체험 공간
  슈퍼스톡마켓에서 주식을 쇼핑처럼 쉽게!
- 내 투자성향 MBTI는?
  솔루션 센터에서 나만의 투자법으로 신나게!
-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문화살롱에서 다양한 투자법을 즐겁게!
- 나의 투자 능력 레벨은?
  게임랜드에서 복잡한 투자를 재밌게!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3947호(2021-08-18~2022-08-17)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거래]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약0.084%~0.499% (온라인 매매 기준, 거래금액별/채널별 상이), 비대면계좌 0.01%(모바일증권 기준)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 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22%)은 경품 당첨자 부담이며,경품 가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투자지원금 당첨자의 경우 제세공과금(22%)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당첨자 명의의 NH투자증권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가 없거나, 계좌 폐쇄 등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첨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당첨된 경품을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상품으로 교환 환불 하실 수 없습니다.

GENESIS

PLUG INTO YOUR SENSES
당신과의 교감을 위해
THE GENESIS GV60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전비 및 등급 ▶ 4WD 20인치:복합4.3km/kwh(도심4.6km/kwh, 고속도로'4.0km/kwh) I CO_2배출량:0g/km I 1회충전주행거리:380km I 축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697V(111.2h) I 공차중량:2,100kg ▶ 4WD 19인치:복합4.5km/kwh(도심4.8km/kwh, 고속도로:4.1km/kwh) I CO_2배출량:0g/km I 1회충전주행거리:400km I 축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697V(111.2h) I 공차중량:2,095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전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맙시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제네시스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SK telecom for All
세상의 모든 구독, 우주에서 만나다
우리는 이제 우주로 갑니다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
구우주.
TMAP
FLO
emart
배민
Google One
wavve
11

유튜브에서 LG미래쏭 을 검색해보세요
LG,
이런 미래
가능해?
옥수수로 만든 페트병이 지구를 지키는 미래
빅데이터가 내 생활에 맞춰 집안일을 돕는 미래
A.I가 신약개발 속도를 확~ 올려주는 미래
우리에겐 또 어떤 미래가 가능할까요?
LG가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
[미래로 부르는 미래] 뮤직비디오로 확인해보세요
LG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지금의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무한한 바람과 수소에서 인류의 에너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

지금은 조금 낯선 에너지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DOOSAN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세계 최장 수명 수소연료전지 개발

두산은 무한한 바람과 수소를 활용한
풍력 및 수소연료전지(퓨얼셀)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상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컬렉션 할수록 특별해지는
당신의 공간, 당신의 라이프

공간인테리어 가전
LG Objet Collection

Lifetime Value Creator

www.lotte.co.kr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지금까지의 틀을 벗어나
내일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새로움이
모두의 이로움으로 이어지도록
새로운 롯데가 이로운 세상의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롯데

GS 칼텍스

에너지를 더했다 가능성을 넓혔다

급변하는 미래환경과 고객변화 속에서
에너지가 삶과 더 가까워질 순 없을까?

그래서, **GS** 칼텍스가 시작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확장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가능성을 넓힙니다

에너지에 공간가치를 더하다
고객/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복합개발

에너지에 디지털을 더하다
차량 자동인식, 주유 간편결제로 편리함을 높이는 에너지플러스 모바일서비스
(비콘인식,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에너지에 Mobility & Life를 더하다
모빌리티 인프라와 라이프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
(EV충전, 수소충전, 마이크로모빌리티, 물류거점 서비스 등)

에너지에 혜택을 더하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신용카드

+더 쉽고 편안한, 새로운 금융

Shinhan

Do the 「Green」 Thing
환경을 생각하는 올바른 금융

환경과 친한 기업에 투자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들과 손잡으며
환경을 내 일로 여기는 올바른 금융

모두를 위한 원더풀 월드를 위해
노력합니다

친환경 기업 투자 확대 | 저탄소 경제 가속화 지원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Future is Calling

중학교 1학년 육상선수 배윤진과 최명진

"가장 힘들 때요? 열심히 뛰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기록을 깨지 못했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냐구요? 당연히 놀고 싶죠
근데 놀고 싶다고 다 놀면 기록은 영원히 못 깰 것 같아요ㅎㅎ"

어리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한계에 도전하는
배윤진, 최명진 선수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KB금융그룹은 두 어린 선수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세상을 바꾸다
KB금융그룹

부원여중 100m 육상선수 **배윤진**

이리동중 100m 육상선수 **최명진**

KB금융그룹

WE DO%

자연 원료 플라스틱으로
환경에 흔적을 0%로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0%로

모든 사업장의
폐기물 매립 발생을 0%로

LG화학은 **탄소 배출 순증가율 0%**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갑니다

LG화학

HYUNDAI MOBIS Innovation for Humanity, Mobility for Tomorrow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회사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대모비스는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움직입니다. 현대모비스

타협 없는 원칙의 길,

최상위 SAT 등급 녹용 100% 사용
7가지 녹용 특허로 완성한 정관장만의 노하우

녹용의 원칙을 세우다

정관장 천 녹

제조원 및 판매원 : 주/한국인삼공사

NICE정보통신 주식회사

지불결제시장의 선도자!

NICE정보통신이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NICE정보통신㈜은
온·오프라인 모바일 환경에서 MS카드 IC카드 등의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에 대한
고객중심의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지급결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결제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갑니다.

VAN 서비스

- 신용/체크/직불카드 승인 및 매입/청구서비스
- 현금영수증 거래 승인 서비스
- 전자상품권 및 멤버십서비스
- 카드조회단말기 및 POS 개발/공급

NICE정보통신 주식회사

다시 태어난 완벽한 미학
X1 ANNIVERSARY
이탈리아 예술이 빚어낸 아름다움,
그 순간을 간직하다

X1 ANNIVERSARY AND THE EXCLUSIVE
ILLY IPERESPRESSO CAPSULE SYSTEM

X1 Anniversary 머신은
완벽한 에스프레소와 크리미한 카푸치노
그리고 향긋한 아메리카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리만의 혁신적인 Iperespresso 캡슐 시스템으로
완벽한 맛과 럭셔리한 스타일의
아름답고 완벽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www.illycaffe.co.kr

ESG경영으로
글로벌 TOP4를 향해
나아갑니다

전 세계 103개국에 진출한 KT&G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ESG 경영을 바탕으로
업계 글로벌 TOP4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상상을 나누다 KT&G

SBS D 포럼 만든 사람들

기획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실 미래팀 고철종 SBS 논설위원실장 이정애 SBS 미래팀장 / 부장 이종훈 SBS 차장 / 기자 박준석 SBS 차장 / 프로그램 매니저 채희선 SBS 기자 류란 SBS 기자 화강윤 SBS 기자 최예진 작가 최유진 작가 손민정 작가 신소희 그래픽 · 디자인 감독 임세종 촬영감독 송현주 콘텐츠 마케터 김원기 SBS 사원 (보도운영) 김상영 행정
연출	하승보 SBS 국장 최성락 SBS 차장 / 보도본부 피디 김재혁 SBS 부장 / 콘텐츠전략본부 피디 윤태욱 SBS 차장 / 제작본부 피디 홍성우 PD / 굳텐더브로드캐스트 배현집 PD / 조연출
무대	이용탁 SBS A&T 차장 (미술감독) 정혜경 (무대 디자인) 송주영 (무대 제작) 김유신 SBS A&T 차장 (소품) 정기석 SBS A&T 차장 (전식) 김용선 성명영 비전CI / 박영도 김호철 정태순 강효원 (LED)
비주얼 디자인	문상훈 감독 (기획 및 제작) 주지윤 (프로그램북 디자인) 최지유 (LED/CG 디자인) 김은영 (발표자료 디자인) 섹션 나인 / 양석훈 (LED VJ) 강현지 (자막 디자인) 이경숙 (자막 운영)
중계 기술	기술감독 김영일 SBS A&T 차장 영상 윤영석 SBS A&T 차장 시스템 백길현 SBS A&T 차장 음향 최신원 SBS A&T
기술 · 카메라 · 조명	기술감독 안창준 SBS A&T 차장
영상	고재경 SBS A&T 차장 정준영 SBS A&T 차장
녹화	노경남 SBS A&T 차장 심병수 SBS A&T
음향	박근태 SBS A&T 차장 김태식 SBS A&T 조형곤 SBS A&T
카메라	SBS A&T 영상제작 1팀
ENG 카메라	임우식 SBS A&T 차장 박종기 SBS A&T
오디오맨	조용준 / 남원석 SBS A&T
조명	이은범 SBS A&T 차장 전승훈 SBS A&T 사원 유유스테이지 (외부 조명)
외부음향	고종진 / 큐도스에이티
카메라 특수장비	세눈/ 윤찬웅 김정훈 임주성 박재웅 양홍석 박준영 백선호
와이어카메라	우리두리영상 / 양재훈 김동욱
지미집	세눈/ 윤찬웅 김정훈 임주성 박재웅 양홍석 마명준
음악 · 음향효과	윤재영

분장	홍찬희 황인혜 정다운
미용	박선주 심정화 김은희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비즈엠티 (브레이크아웃) / 김영범 이테크시스템 (시스코웹엑스) / 서용상 김성수 박민혁 전재형
테크놀로지 파트너	에픽 게임즈(Epic Games) 리얼루전(Reallusion)
AR	유윈인포시스 / 서강욱 강민철 채민규 이용한 송상훈 프리즘씨엔엠(FRIZM C&M) / 노정환 김효지
사전행사	세모파이 / 이명길 김윤규
SBS디지털뉴스랩	이상훈 팀장 오수연 차장 김유경 차장 박은미 차장 박수현 과장 박진호 과장 임효진 과장 김도희 대리 오윤지 대리 송지윤 대리 김민정 사원
대행사-지엘컴	김다애 본부장 김지선 팀장 성영현 차장 (등록팀) 배성아 대리 이지연 차장 (연사행정팀) 장윤구 대리 김근태 사원 양현수 팀장 (운영팀) 전정기 팀장 강동은 대리
홍보 · 마케팅	허브넷굿컴퍼니닷컴 주식회사

Special thanks to	손석민 SBS 정치부장 진송민 SBS 정치팀장 김정인 SBS 통일외교팀장 이한석 SBS 여당반장 김수영 SBS 야당반장 우상욱 SBS 경제부장 정호선 SBS 산업IT팀장

SBS D FORUM
2021